

# 肉鷄생산에 있어 出荷일령을 단축시키는 방법

부로일령을 육성함에있어서 일정한 체중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 할 때 남보다 출하일령 즉 사육일령을 단축시킨다는것은 사료효율의 향상 뿐 만이 아니라 생산원가치의 절감, 생산능력의 향상등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면 출하일령을 단축시키자면 병아리의 선택을 무엇보다도 잘하여야 하며 마음은 사료의 품질여하가 성장 및 효율에 큰영향을 미치게되며 나아가서 같은 병아리에 같은 사료라 할지라도 시설 과 환경 및 관리방법의 양부에따라 큰 영향을 미치게하니 이점을 특히 고려하여야한다. 같은병아리에 같은 사료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환경과 관리방법 여하에 따라서 1.5kg의 체중을 만드는데 50일이 소요된 자가 있는가하면 60~70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더욱이 병아리와 사료까지 품질에 차이가있는 경우에는 더욱 큰 차이가 생겨 생산원가면에서 생계 1kg중 400원이면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하면 600~700원까지 원가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육자들이 이러한 것을 잘 알면서 안일과 타성, 인습, 정실등으로 개선되지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사육자들에게 현실정에 입각하여 주의할점을 제기하므로서 유의하여 시정할 것을 부탁 하고저 한다.

## 1. 병아리 구입선택에 관하여

금년도는 작년과 달리 육계전용종의 종계가 많이 보급되었을 뿐 만이 아니라 씨비용및 왕병아리용의 종계가 많이 확보되어있어 초생추구입에는 작년과 같은 어려움은 없을것이며 특별한 소비확대가 없는 한 추대는 저렴하게될것이며 또한 육계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될 것이 예상되는 이때 사육자들은 스스로 입추조절 즉 생산조절로 가격을 적정유지하도록

오 세 정

〈본 협 회 회 장 교 수  
건 국 대 회 학 교 수  
축 산 과 과 수〉

촉구하는 바이다.

병아리값이 싸다고 좋은것이 아니고 비싸다고 나쁜것이 아니며 부화장의 선택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할 때이다.

병아리의 종류, 계통, 교잡방법에 따라 그의 능력은 크게 차이가 있으며 같은 계통의 종계라하더라도 종계의 영양관리, 산화기술 및 위생관리, 종계의 선발 특히 수탉의 선택 여하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있다.

그러니 신중있는 경영주의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구입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번에 지방종계장을 종계심사차 다녀본 바 놀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같은 계사에 계통이 다른 것은 물론세대가 다른것 즉 종계와 실용계를 혼사하고 있으며 각종 용계를 별도로 확보하여 임의교잡하고저 사육하고있다.

심지어는 종계 200수만을 위탁사육하여 부화하고저 준비한 곳이 있으며, 부화기 8 대를 갖은자가 자기의 종계는 없이 농가에 20수부터 100수씩 분리 위탁사육하여 18개소에 분할사육중이며 그의 사양기술이나 위생관리가 30년전 재래식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부화장도 마치 창고와 같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화된 병아리가 과연 능력이 어떠한지 걱정되는바 크다. 또한 들은바에 의하면 작년에 양심적인 부화장은 돈을 적게 벌고 비양심적으로 전문중에 세미종숫놈을 혼합하여 판매함으로써 큰 이익을 보았다는 말이 들린다. 이러한 부조리, 불법은 하루속히 양계분야에서 깨끗이 없어져야하며 시정되어야한다.

심지어는 종계분양에까지 의혹적이고 불신이 있다는 말이 나오게되니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바람직하다.

부로일러 사육자들은 병아리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있으니 자기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하며 능력이 비슷한 병아리 혈통이 정확한 병아리 구입에 다시한번 주의하여 주기바라며 부화업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 2. 사료선택과 급여방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료공장 80여개소에서 생산된 사료의 품질을 대체로 보면 원료수급의 차질과 가격의 억제책등으로 인하여 보다 우수한 제품을 제조생산할 수 없는 여건이 문제이지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같은 여건하에서 각공장에서 생산된 사료품질의 차이는 있는 것이다.

그러니 원료수급사정이 원활하고 일관성있게 배급하며 경영주가 양심적인 동시에 기술자 손에 의하여 책임배급하는 공장의것은 비교적 좋은 편이며 그렇지못한 것은 저질과 불균형사료가 생산되기 쉽다. 만일 규모가 큰 사육자는 한곳의 사료공장만을 거래하지 말고 2개소 이상을 거래함으로써 그때 그때 비교가 용이하며 원인을 규명하기가 쉬운일이다.

그리고 전용종의 경우는 진후기 사료의 2종으로만 구분하지 말고 출하하기 1주간을 먹이는 완성사료 또는 말기사료를 따로 만들어 먹임으로써 값도 싸며 또한 사료효율을 높일수 있는 것이다. 사료선택이나 초생추 선택에 대하여는 다 잘 아는 사실이고 형편과 입장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 이만 줄이고 사료관리방법과 환경및 시설에 대하여 상술하고저 한다.

## 3. 관리와 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같은 계통의 병아리를 같은 부화장에서 같은 일자에 가져다가 같은사료로 사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사람은 55일만에 출하 하였는데 다른사람은 65일이 소요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다. 즉 10일간의 차이는 생산비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할 뿐 만이 아니라 경영상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오직 관리하는 요령과 기술의 차이이므로 적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세밀히 관찰하고 연구하여 사소한 일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시정 개선토록 하여야한다. 남보다 좋은 상품을 빨리출하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일이다

**(1) 전용종은 더욱 평사에 산형육추를 할것**

출하체중이 1kg이하의 새끼 또는 영제는 입체식에도 큰 지장이 없지만 1kg 이상으로 대형체중으로 만들수록 평사에서 육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① 급온에 따른 생활환경의 온도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입체식에서는 상하의 온도차가 심한 경우가 많으며 몹시 더울때 열원에서 멀리 피할 방법이 없다. 그리하여 질식 또는 사료효율의 저하로 성장 증체가 나빠진다.

② 이동으로 스트레스가 없어 성장이 빠르다.

병아리를 이동시킴으로서 스트레스는 매우 큰 것이다. 특히 빠다리의 경우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이동되었을 경우 이동한 날부터 며칠간은 증체가 거의 되지 않는다. 이동시 1수씩 정성껏 옮겨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한그릇에 수십수씩 막 집어넣어 옮겼을때 이는 더욱 큰 영향을 받게된다.

평사에서도 이동시키는 것은 좋지 않으며 한 곳에서 입추하여 출하까지 한 장소에서 육성하는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③ 적기에 이동하지 못하면 밀사가 되며 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먹지못하면 성장이 되지 않는다.

밀사와 밀집되는 관리자 성장및 사료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할 뿐 아니라 강약추의 발생으로 체중이 균일하지 못하며 육성율과 출하체중의 불균형으로 제 값을 받지 못하게 된다.

④ 케이지나 빠다리에서 1kg이상의 체중이면 앞가슴에 살이 찌지 않으며 또한 앞가슴 피부에 상처, 물집, 굳은 피부가 생겨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며 기타 날개, 다리등에까지 상처를 많이 받게 한다.

생계유통에 있어서는 털이 있어서 잘 보이지않어 무관심하였지만 앞으로 도계유통에 있어서는 상품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 1.5kg이상부터는 반드시 평사에서 육성되어야 한다.

⑤ 활동에 안정감을 주어야한다.

대형육제 (1.5kg이상) 인수록 빠다리에서 는 바닥이 상하로 출렁거리며 심한 경우는 좌우로 흔들린다. 이와같이 생활의 불안은 사료효율을 크게 떨어트리며 성장이 되지않는다. 그러나 평사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기때문에 바닥이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⑥ 노동력이 절약되며 대군사육이 용이하다.

자유급이, 자유급수에 의하여 생활의 안정과 강약이 적어진다. 입체식에서는 회수급여가 불가피한 일이기때문에 사료를 출때마다 병아리는 요동을 하며 서로 먹으려고 아우성치다 서로 밟히고 사이에 끼여 다치게되어 강약이 더욱 심해진다.

⑦ 환기가 일반적으로 좋다.

입체식에서는 전체 실온으로 보온 되어 육성되기 때문에 환기가 불량하나 새갓있는곳에만 급온되기때문에 환기가 새갓식이 더욱 필요하다.

**(2) 점동관리는 3~4시간을 어둡게하여 재우고 1시간 불을 켜서 사료와 물을 먹게 관리하는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성장이 빠르고 사료 효율 이 좋다.**

흔히 24시간 점동하던가 16시간내외를 관리하고 나머지를 재우던가 하는경우가 있는데 24시간 계속 불을 켜서 관리하는 것은 압사방지에 효과는 있으나 사료효율은 가장 나쁘며 닭은 먹은사료가 3~4시간이면 좋은 환경조건 하에서는 거의 소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배가 심히 고프지 않을 정도인 3~4시간을 쉬도록 재우며 1시간 동안 관리하여 사료와 물을 먹게함으로서 에너지손실을 방지하게되어 증체의 효과와 사료효율의 향상을 갖어오게 되는것이다.

가능한 한 이러한 방법을 쓸수있도록 시설을 할 것이며 또한 너무 직사광선이나 시설을 밝게하여 신경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다. 너무 밝으면 신경이 예민하고 놀라기 쉽다. 그로인한 불안감이 커지게 마련이다.

### (3) 입추시 가급적 구분하여 입추할것

가능한한 입추시에는 체중별, 자용별, 강약별, 발생시차별, 품종별로 구분하여 넣는것이 강약이 생기지 않으며 특히 자용별로 구분하는 것은 출하시 체중의 차이와 시기 때문에 꼭 구분, 입추 시키는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숫놈은 암놈보다 출하시체중이 무거우며 또한 숫놈은 약1주간 더 키워도 사료 효율 면으로 암놈보다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용을 반드시 구분하여 입추하는것을 권장하고 싶다.

또한 부화장에서 양심적으로 무감별로 준다 하여도 자용의 비가 맞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감별하여 차등을 두는 배부를 하는 경우는 손해가 많으니 감별료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자용을 구분하여 받는것이 사육자에게 큰 이가 있으니 하루속히 육계추의 감별제를 권장한다.

### (4) 첫물과 모이를 주는 비결

병아리가 도착후 좋은 환경에서 입추하여 휴식시킨후 첫번의 관리는 물을 주게 되는데 반드시 깨끗한 미온수를 먹여야하며 찬 냉수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장거리 수송 또는 발생추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목이 마를때 물그릇에 주면 물그릇에 병아리가 빠지며 털에 물이 묻어 병아리를 약하게 한다.

이때는 한마리씩 물그릇에 입을 담그어 입을 축이고 물을 먹게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되면 병아리는 활기를 찾게된다.

특히 맹물보다 피로의 회복과 영양소의 공급 나가서는 질병의 예방과 스트레스를 적게 또는 막게하기 위하여

“미온수 + 설탕2~5% + 수용성 비타민제 + 항생제 + 인삼물”을 섞어서 첫물부터2~3일간 먹이면 더욱 이상적이다.

최소한 미온수에 설탕과 비타민제 항생제는 먹이는 것이 별로 큰 비용도 들지않으므로 권

장 하고 싶다.

또한 사료를 물에다 반죽하여 줄때 먹이면 물로 반죽하는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다. 이와 같이 어렸을때 영양보급과 항병력을 길러주도록 정성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 폐사도 적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된다.

사료는 초이사료를 별도로 만들어 먹이는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소화가 용이한 곡류(옥수수, 밥, 백채미, 배아등)(특히 점착성이 있는 미분말인 밀가루, 쌀가루 같은것은 좋지못하니 섞지말것)를 80~85%가 양질의 단백질 사료(어분, 대두박 분유 2%등)에다 비타민제와 항생제를 첨가한것을 배합하여 물에다 충분히 불켜서(질지않게) 자유채식케한다.

이와같이 1~2일간 먹인다음 육추사료도 점진적으로 바꿔 먹이는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요즘은 초생추사료에는 섬유질이 많으며 특이 나쁜 단백질사료의 배합으로 병아리를 약하게 하며 소화가 불량하여 발육에 큰 지장을 주게하니 첫모이만은 별도로 특별히 만들어 먹이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설마 어떻하랴? 과거에도 이렇게 하였는데……” 라는 인습과 타성에 젖어있다가 큰 손해를 보는경우가 있으니 남의 탓 하기에 앞서 정성껏 실천하기 바란다.

### (5) 사료섭취 여부를 확인 구분할 것

첫모이를 먹인후 저녁에 불을 끄고 소낭을 만져보면서 사료의 섭취여부를 확인한다. 소낭이 불은것은 사료를 먹은것이고 아무 것도 없으면 먹지않은 것이니, 먹지않은 것은 골라서 별도로 수용한후 다음날 관찰하며 약의 투여여부를 결정한다.

이와같이 저녁에 2일~3일간을 반복하면서 정성껏 관리를 하는것이 강약이나 폐사가 없이 잘 길러낼 수 있는 비결인것이다.

### (6) 예방접종의 중요성

뉴-켓슬과 계역접종을 하지않고 육성 해낼 정도로 방역위생이 철저하여 병원체의 침입을 완전히 차단하면 출하일령을 크게 단축 시킬 수 있다. 예방접종과 이러한 작업을하는 과정에 병아리에게는 큰 스트레스를 주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육계를 생산할경우 예방접종은 불가피한 일이며 철저히 실시 되어야 한다. 단 병아리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하며 접종을 실시할것.

### (7) 환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내에 먼지나 냄새가 나지 않을정도로 환기를 철저히 시켜야한다.

특히 육추실의 환기불량의 원인을 열거하면

① 성계보다 어린 병아리의 호흡량이 체중에 비하여 많으며 대균수용을 하게된다.

② 급온시설을 하게된다.

③ 급온시설(난로)의 설치는 연료의 산화 과정에서 소비되는 산소의 양이 막대하다. 그로 인하여 사내에 산소량이 적어서 신선한 공기의 상태를 유지못하게 된다. 또한 열원 에서 발생하는 깨스도 있다.

④ 배설물, 자릿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와 깨스가 혼합된다.

⑤ 병아리의 활동에서 생기는 먼지와 사료 먹을때 비산되는 먼지

⑥ 고온에서 오는 공기의 희석과 팽창으로 신선한 공기를 유지못하게 된다.

⑦ 관리자들의 흡연과 호흡량.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육추사내에 공기를 청결 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환기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하며 특히 입체식 육추에 주의하고 또한 하절에 주의 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공기의 대류가 잘되지 않아 환기가 거의 안되는 경우가 많다.

환기의 불량은 질병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또한 성장발육은 사료를 섭취 소화흡수

하여 대사되는 과정에서 산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항상 신선한 공기를 호흡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환기를 시킬 것

**(8) 닭 상인을 계사주변에 접근시키지 말 것이며 악수나 돈을 센다음에는 반드시 소독수에 씻어야 한다.**

닭상인들은 이집 저집 다니며 건강한 닭 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닭, 병든닭을 모두 취급하며 스스로 소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육자들이 이를 주의 경계하며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9) 환경위생이 불량한때에는 항생제를 비롯하여 각종예방 및 치료제를 급여하며 공중 소독을 자주 실시할것.**

환경위생이 좋고 병아리가 건강할때에는 약의 효과가 적으나 위생상태가 불량하면 불량할수록 약의 급여효과는 커진다. 그리고 실내의 세균수를 줄이기 위하여 소독약을 공중 살포 실시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10) 환경의 급변이나 각종스트레스를 없게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관리중에 급격한 충격을 주어 병아리가 놀란다던가, 온도의 급도, 심한 바람을 받든가, 쥐나 외부소음으로 인하여 수시 불안감을 느끼게 하던가 이러한 모든것이 성장 발육에 영향을 미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료효율의 저하를 가져오게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결론적으로 출하일차 단축은 관리에 있어서 애정을 갖고 병아리와 대화하며 섬세하게 연구 조사하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아무쪼록 육계의 생산은 규모의 확대나 수적인 증대보다 내적 충실함을 기해 알차게 육성해 내는 것이 수익성을 높이는 일이니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란다.